

## 김선일의 죽음...산 자의 비통함

아름다운 청년 김선일이 죽었다. 성실하고 가복한 성품을 지닌 청년이 처참하게 피사했다. 세상을 향해, '나는 죽고 싶지 않다'는 처절한 절규를 남기고 갔다. 두 번 다시 그 화면을 볼 엄두조차 나지 않는 절규였다. 살아남은 자들의 뇌리에 평생 잊혀지지 않을 비통한 모습으로 떠났다.

그 누구에게도 죽음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그러나 공포와 억압 속에서 억울하게 자행된 살인은 그 비극성을 감당할 말이 없다. 인간이란 존재를 부정하고 싶다. 인간이란 과연 어떤 존속인가에 대한 회의가 든다.

어떠한 논쟁도, 어떠한 명분도 목숨보다는 덜 중요하다. 순결한 영혼을 지닌 청년의 비참한 죽음을 목격하니 모든 논쟁이 부질없이 보인다. 파병이나 반대나 평화 따위의 구호가 참으로 허망하다. 구호와 이념이 인간을 저렇게도 잔혹하게 만드는구나. 저렇게 처절한 절규를 목살할 수도 있구나. 차라리 영화의 한 장면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것은 실제상황이었고 소박한 꿈을 실현하려던 청년은 처참하게 죽었다. 남은 자들은 대책 없는 공황 상태에 빠져 의식이 혼미하다. 사지가 떨려 몸을 가누기조차 어렵다.

한 우주가 소멸했다. 인간은 개개인이 우주이다. 김선일이란 우주가 처참하고 억울하게 사라졌다. 그가 남긴 절규를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우리는 또 부질없는 논쟁으로 망자를 욕보이는 짓을 자행하지 않을까.

불살생(不殺生)의 계율이 다시금 저릿하게 다가온다. 함부로 죽이는 일에 인간은 이미 너무 익숙해져 있다. 때로는 명분을 내세워 죽이고 때로는 이유 없이 죽인다. 미물은 물론 인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 업보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다지 공포해졌는가. 어쩌자고 인간 세상이 잔혹성의 경연장이 되어가고 있는가.

죽음은 결국 살아남은 자들에게 부여하는 의미이다. 죽음을 통해 자신과 주변의 삶을 살펴보는 경교이다. 어려운 환경에도 너그러움과 성실성을 베풀어 간직했던 서른 네 살 총각 김선일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인가. 입가에서만 맴도는 사랑과 평화가 아니라 그것이 몸으로 느껴지는 세상이 아닐까. '당신들의 목숨이 소중하듯이 나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그의 절규가 귀에 쟁쟁하다. 수십 년 면벽 수행한 선객의 목소리보다 더 강하게 가슴을 친다.

상생(相生)이란 말을 그저 듣기 좋은 구호로만 쓸 일이 아니다. 필요할 때만 꺼내놓는 장식물이 아니다. 인간은 똑같은 용량의 그릇이다. 더벅머리 노총각이 온몸으로 부르짖은 함성을 잊지 말자. 시대의 제물이 되어 산화한 청년의 얼을 잊지 말자. 자신과 세상을 성찰하는 아픈 추념의 시간을 갖자.

■이우상(소설가·대진대 문학과 겸임교수)

## 친환경불사 '원칙' 세우자

### '해인사 불사 논란' 계기 시스템 마련 여론 높아

환경보호를 이유로 북한산 관동도로와 천성산 고속철 관동도를 그토록 반대했던 불교계. 그런데 불사에 있어서만큼은 환경문제에 대해 너그럽다. 자연히 불교환경운동이 설득력을 얻을 수밖에 없고, 근래 들어서는 '불교계는 이기적 집단'이라는 비아냥까지 들린다.

환경에 대한 불교의 '이중적 잣대'가 계속될 경우 불교의 신뢰마저 의심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더욱이 해인사 불사가 논란이 되면서 이제는 친환경적 불사를 위한 기준을 세우고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다.

해인사 스님들과 불교계 17개 단체는 6월 18일과 21일 각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해인사가 추진하고 있는 '팔만대장경 등반 복원 불사' 등 판장경 판교와 신행문화도량 건립

'고불암 및 마장 일대 개발 추진 건' 등에 대해 환경 파괴와 수환경영점해, 불교 위신 실추 등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종 불사 추진 시 사찰 내부에서부터 '사부대중의 공론'을 모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즉 현재처럼 주지 스님의 뜻에 따라 불사를 추진하기 보다는 입안 단계부터 '사찰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사부대중의 공론이 담긴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그려야 한다는 것이다.

중단 차원에서도 문화·환경 전문가가 참여한 가정 '불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내부 점검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설득력 있게 들린다. 특히 이 기구를 중령 등으로 범제화해야 직접적인 각종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부 시스템 마련뿐만 아니라 불사를 심의하는 국립공무원회나 문화재위원회 등에 불교계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해, 사회적 논의 이전 일종의 순화 작용을 해야 한다는 외부 노력도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불사환경지침서인 '불교환경의제 21'를 기본 텍스트로, 출·재가공히 지속적인 환경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중·장기적 환경마인드 확립의 필요성도 절실하다.

이방인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김성호)는 "불사를 시작할 때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수립돼야 하고, 불사를 추진하기에 앞서 환경문제가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알 수 있도록 '사찰환경기본계획서'를 준비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동우·강유신 기자



만해 스님의 '삼국지' 번역 옥필원고의 첫 장. 하안산안 글씨는 만해 스님 것이 아니라 나중에 다른 사람이 썼는 것으로 보인다.

## 만해 스님 '삼국지' 번역 옥필 첫 공개

### 1939년 조선일보 연재

만해 한용운 스님의 열반 60주기(6월 29일)를 맞아 지난 1939~40년 <삼국지>를 번역한 스님의 옥필 원고 처음 공개됐다. 정진현씨(서울 금천구 시흥동)가 소장하고 있는 이 옥필원고는 양면지에 필필로 쓴 것. 만해 스님은 1939년 11월 1일부터 조선일보가 폐간된 1940년 8월 11일까지 <삼국지>를 번역해 모두

281회 연재했는데, 이번이 공개된 옥필원고는 172회까지다.

만해 연구가 김재홍 교수(경희대, 만해사상실천선양회 부설 만해학술원장)는 "<삼국지>번역원고에서 스님 한글 글씨의 특징이 보인다"고 밝혔다. 백담사 만해마을 연구실장 김광식 교수(부천대)도 "열반 60주기를 앞두고 만해 스님의 친필을 대하니 감격스럽다"고 말했다.

이경숙 기자 gsklee@buddhapia.com

## 17대 국회 정각회 결성 '급물살'

### 7월 중순 첫 법회... 회장에 이용희 의원 유력

불자의원들의 신행모임인 정각회가 17대 국회에서 결성된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불자의원들은 6월 2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각회 구성 예비모임을 갖고, 회장에 이용희(우리당), 수석부회장에 박세일(한나라당), 부회장에 강정일(우리당), 간사장에 안홍준(한나라당) 의원을 17대 국회정각회 1기 임원단으로 추천했다. 또 창립법회는 오는 7월 중순경에 봉행하고, 추후 일

정은 다음 주에 다시 논의키로 했다. 양당 불자의원들은 특히 그간 논란이 됐던 정각회장 선출 방식과 관련, 회장 임기 2년을 기준으로 전반기는 원내 다수당인 우리당이, 후반기는 한나라당이 맡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박세일 의원은 "빠른 시일 내 불자의원 총회를 열어, 17대 정각회 1기 임원단 구성안 인준을 받아 곧바로 정각회를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 한반도 평화 위한

### 南·北·美 종교인 회담

남한 북한 미국의 종교 지도자들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종교인의 역할을 주제로 첫 3차회담을 갖는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 회장 백도웅 목사, 미주종교평화회의 공동회장 도안 스님(LA 관음사 주지), 북한종교인평화회의 장재은 회장 등은 6월 30일 श्री랑카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종교인들이 기여할 점에 대하여 의견을 나눈다.

강유신 기자

## 한형조 교수 새연재

'금강경 강의, 붓다의...' 이번호부터 20면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 강의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을 20면에 연재합니다. '가장 잘 알려진 것이 가장 낯선 법'이라는 발상에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필자 한형조 교수(한국정신문화연구원)는 그동안 <예 동양철학인간기>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등을 저술했습니다.

## 제8차 세계여성불자대회 개막

내달 5일까지, 학술발표·문화행사 등 다채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명성) 주최로 열리는 제8차 세계여성불자대회가 6월 27일 중앙승가대학교에서 개막돼 7월5일까지 9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여성불자의 교육과 수행: 현재와 과거'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 개막식에는 공동대회장 명성, 카르

마 렉쉬 쏘모 스님과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봉녕사 승가대학장 묘연 스님, 지은희 여성부 장관, 열린우리당 이은경 의원, 문화관광부 한진수 총무실장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했다. <차주상보·붓다뉴스 실시간 보도>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범추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 동행포럼·가산학회

- 대주제 : 수행의 가치와 우리의 미래  
동행포럼은 가산법인의 설립이념에 기초하여 인류의 眞道 중에 無上의 眞道로 승인한 修行文化를 대중화하고 복된 미래를 전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6차 동행포럼 : 연구자그룹 신사 초정 수행체험  
일시 : 2004년 12월 14일~12월 16일  
진행 : 주제 발표 및 토론 그리고 수행체험
- 전국연합연구공동체 가산학회  
● 불교학부과·불교와 인문·사회과학부과·불교와 자연과학부과·불교예술문화과

### 교육사업/불교원전전문학림삼학원

- 취지와 목적  
佛敎原典專門學林 三學院은 佛敎의 慧明과 佛敎의 修行傳統을 청의적으로 계승하는 扶宗樹敎의 道堂.
- 교육과정  
● 불교원전연구과정  
선전강독·한국불교문화원강독·원전서연찬
- 불교어학연수과정  
불교한문강독·번어연습초급·티베트어연습·말리아어연습
- 기초학습과정·불교근본교설의 이해
- 삼학원생 원서교복부 / 일반수강생은 수시접수 가능

### 학술·교화·출판사업

- 가산학회 편 『佛山學報』 창간호~10호, 제11호 근간
- 이지원 저 『가야산해인사지』 / 『한국고승비문총서』 총간(1~7권) 『한국불교소경전연구』 / 『남북전통부부장비교연구』 외 다수
- 가산삼학총서  
● v001 율장부 법해 역주 『고려판 선원경구역주』  
● a002 논장부 임승택 역주 『비파생비다막가역주』  
● s003 선종부 김영목 역주 『진각국사어록』 (근간)  
● e001 연구부 편찬위 『일천년 한국의 선지식』 (근간)  
● e002 연구부 정림섭 외 『지성의 공경』 (근간)
- 세미나 및 기획자료집 『佛國佛敎文化思想史』(상·하) 등 다수

### 불교대백과사전 편찬사업

본 사업을 후원하거나,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佛山佛敎大辭林' 회원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2500년 불교사에 있어서 세계최대 표제어를 수록한 불교대백과사전!!"  
"1700년 한국불교사에 있어서 일반불교승려 및 한국불교승려의 정지한 1차결집!!"  
"세계불교학의 연구성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한국불교학 및 인문학연구전통의 새로운 지평!!"

한국불교 중흥의 초석이 될 가산불교대사전 회원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현재 1·2·3·4·5·6권 출간, 7권 근간·전15권 내차 속간 예정
- 전권금액 2,180,000원 / 예약회원은 20%할인하여 1,750,000원(우편료 포함)입니다
- 예약회원은 '가산불교대사전' 전권구입을 희망하시는 분으로, 위의 금액을 3~6개월로 분할입금하시면 됩니다